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안될일 없죠”

“축하를 하기 보다는 위로를 해 주세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이후 열 들 없는 일정으로 중무에 임하고 있는 고산스님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는 인사말을 이렇듯 받았다. 스님은 새벽예불과 참선, 염불지송, 대중공양 등 산사에서 수행 자세를 총무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며 중무에 몰두하고 있다. 워낙 바쁘게 짜여진 일정과 아직 서울에 공기에 덜 익숙한 탓에 입술까지 부르렀지만 방문객을 일일이 접견하고 맑은 법담도 들려준다. 새롭게 출발한 제 29대 조계종 집행부. “조계종에 대한 국민과 불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고산스님의 각오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고산스님

대담: 최정희 편집국장

-취임사에서 교단의 원만화합 실현과 청정승가 구현, 원만한 종단 살림을 위해 삼보를 호지하고 시봉하는 총무원의 위상정립 등을 강조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수행자로서 살아 가는 길이란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길을 잘 간다면 말지 않은 종래에 종단의 대소사 일들이 모두 잘 수행될 겁니다. 그러나 수행의 본질에서 이탈하면 해결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에서는 논강에 열중하고 율원에서는 율장을 잘 공부하고 선원에서는 경승을 위해 노력하고 포교사는 포교현장에서 역경사는 번역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는데서 불교위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의 개혁 보다 수행과 전법의 여건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행사생활을 6개월만 해도 사미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존경받는 수행자의 위상을 갖추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살피는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3년 정도 행사생활을 한 뒤에 사미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는 재교육과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찰 운영의 혁신도 중요한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신라시대의 불교는 통일불교였고 고려시대에는 호국불교, 조선시대에는 구국불교였습니다. 현대사회의 불교는 실천불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화 할 수 있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사찰이 해내기 위한 운영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찰 운영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재가신도 참여 문제와 재정 투명화를 위한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원로 종진스님, 중앙종회 등과 의논하였습니다. 먼저 조계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단의 본산이 먼저 잘 하면 지방의 사찰들도 다 잘 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포교불모지에 여러 사찰을 세워 포교의 시범을 보이셨는데, 포교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3년전 부친 신앙촌 뒤에 석왕사를 세웠습니다. 부친은 신종종교를 비롯한 각 종교의 본부가 밀집된 곳인데 거기서부터 포교가 시작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이든 중심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포교현장입니다. 유치원, 양로원, 초중등학교 등을 꾸준히 세워 삶의 현장에서 포교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법회조직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불교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교병원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역경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나 혼자 다 하겠다면 그건 오발탄이 되고 말겠지요. 차차 구상하고 검토하며 원로 종진 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스님의 출가인연이 궁금합니다.

▲출가인연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입산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인연보다 중요한 것은 출가를 해서 견성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목표를 올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위로 받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행을 잘 닦아 나가는 것이 출가의 인연이고 목표일 뿐입니다.

-반백년 이상 수행의 길을 걸으시면 서 잊지 못할 스승과의 인연 그리고 가르침, 수행체감이 많으실텐데요.

▲은사스님은 동산스님입니다. 동산스님은 일생을 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신 분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기침하시고 세수와 염불지송을 하셨지요. 예불에는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었고 대중공양에도 그랬습니다. 어쩌다 편향으로도 대중공양에 참석해서 빈 바리대를 놓고 불만 조금 받아 마신 적도 더러 있었습니. 늘 여러번 생각을 한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스승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예불 모시고, 원각경 보안장과 관세음보살 보문품, 발원문 등을 지송하고, 참선을 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계은사하신 석암스님께서는 “항상 남에게 속지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뿐 아니라 나에게도 속지 않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대의 대강사셨던 고봉스님께서 나를 강사로 만드셨어요. 고봉스님은 늘 “남의 허물을 보기전에 내 허물을 먼저 살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귀하게

간직하는 가르침입니다. 1965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나는 청암사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초여름 어느날 참선을 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어와 시 한편을 읊었습니다.

‘견문여허공(見聞如虛空)이요 각지담여수(覺知湛如水)라 담연허공중(湛然虛空中)에 즉견본래인(即見本來人)이로다.’ 보고듣는 것은 허공과 같고 느끼는 것은 담담하여 흐르는 물 같다. 담담하고 허공과 같은 그 속에 내가 본래인을 보았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한 도시가 눈에 확연히 보이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뉴욕이었어요. 또 일본, 부산, 대구의 광경도 눈에 드러났습니다. 청암사 아래 길로 한 노보살님이 머리에 공양물을 이고 오는 것이 보여서 한 스님을 보내 모시고 오

“교육 포교 역경 복지등 할일 산적 원로종진스님 의견 수용 최선의 결과 도출”

게 하기도 했어요. 참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고봉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저 견성했으니 인가해 주십시오.” “그래, 경계를 일러봐라.” 그래서

- 1934년 1월 27일 경남 울주 생
- 45년 법어사에서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48년 사미계 수지
- 56년 비구계 수지
- 61년 대덕 법계종수, 직지사 강원대학교과 졸업
- 72년 조계사 주지
- 74년 제4대 중앙종회의원
- 74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75년 은해사 주지
- 75년 총무원 총무부장
- 76년 부친 석왕사 창건
- 78년 제5대 중앙종회의원
- 79년 생계사 조실에 추대
- 94년 조계종 초대총무원장
- 95년 동국학원 이사
- 법어사, 해인사 등서 18인거성만
- 청암사, 법어사 강사 역임

라. 또 한번 기쁨의 춤을 추게 됐습니다. 경봉스님께 달려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진척됐다”라 하시더군요.

생계사에는 육조존상을 모신 금당이 있고 그 동서로 각각 선실이 있는데 생계사 주지하면서 10년만에 그 두 선실을 복원했습니다. 어느해 서방장 선실에서 참선을 하다가 또 한번 한소식이 터졌습니다. ‘심행(心行)은 일장몽(一場夢)이요 식심(息心)은 즉시교(卽是覺)라 몽교일여(夢覺一如) 중(中)에 심광(心光)이 조대천(照大千)이라.’ (覺자는 여기서 ‘잠 깨’로 읽는다)마음의 작용은 한바탕 꿈이요 이 마음을 쉬는 것은 꿈을 깨는 것이다. 잠깨고 꾸는 것이 한결 같은 가운데 이 마음의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도다.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나는 체질이 알레르기성이라 마취약 투입이 곤란합니다. 한번은 목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으니 혼자 관음지송을 하며 마음을 보타락 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의사는 갑작같이 수술을 했고 나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수행과 비교할 때 요즘의 행자 또는 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앞에서도 말했듯 행자 교육기간은 좀 연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젊은 스님들도 각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본분사를 최대한 지켜 주길 바랍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불교계의 복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도 적잖은 과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그 자체가 중요한 포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사업의 양과 질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스님들이 기도장전하며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하고 종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1세기가 온다고 해서 무엇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종불이(始終不二)라는 말이 있듯 시간의 흐름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다만 사회환경이 변화해가는 것이니 거기에 맞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고 또 올곧게 따라 살면 그제 원유무애의 삶입니다.

-이런의 살림살이와 사관의 살림살이는 차별이 있겠습니까.

▲불이(不二).

정리=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동산·고봉·석암스님 등 스승 본받으려 노력 행자기간 조절·재정투명화·재교육에 역점

시를 읊고 눈에 무엇이든 보인다고 말했더니 “더 공부해라”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또 정진하고 정진하다가 통도사 경봉스님을 찾아가 여쭈었더니 역시 “더 공부해라. 그건 식광경계(아뢰야식)이 밝은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성급하다는 걸 알고 계속 정진했습니다. 포교사로 활동하고 조계사 주지소임도 보고 그러던 어느해 생계사에서 참선을 하다가 또 문득 마음이 열려 한 구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는 비로체(毘盧體)요 초목합운(草木合雲)은 석가행(釋迦行)이라 일월성수(日月星宿)는 제불안(諸佛眼)이요 생계유수(雙溪流水)는 고산심(高山心)이라’ 산하대지가 모두 비로체나 부처님의 몸이고 초목과 구름이 우리 진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이라. 해와 달이 모두 부처님의 눈이고 생계사 계곡 흐르는 물은 고산의 마음이다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신년맞이 큰 세일 4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 네 최고 다섯가지 장점

-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점진적온도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돌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오.
 -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적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뽑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 부모님, 입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텁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140×50, 2인용)
 -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매우적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① 구입문의: 물.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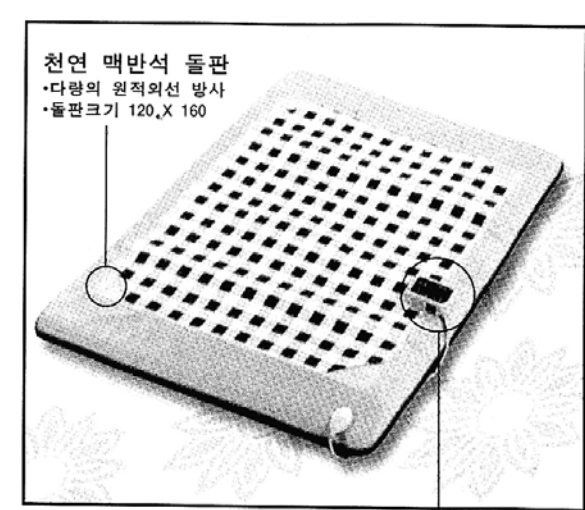
② 특가가격: ₩660,000

₩ 3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 MCI



천연 맥반석 돌판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
·돌판크기 120,X 160

그린홈 매트

첨단 온도조절기
·전자파 차단 접지